

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부조리로 사회가 혼탁해지고,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
특히 조합설립총회시의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선거부정사례를 살펴보고, 대전시에도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좀 더 맑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

1. 선착순 기호배정

- 1) 공정한 기호배정 방식은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추천하는 것입니다.
- 2) 대전의 많은 재개발 추진위는 **선착순**으로 기호배정을 하고 있습니다.

2. 밀장빼기와 줄 세우기

- 1) 번호가 앞설수록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, 경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.
- 2) 정비사업 추진위는 소위 밀장빼기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. 후보자등록 신청서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편들을 모두 앞번호로 배정하는 것입니다.
- 3) 추진위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용역업체는 추진위의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
- 4) 대부분 '서면결의' 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지기에, 토지등소유자를 직접 대면하는 용역업체 직원의 홍보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.
- 5) 조합장 포함 상근임원은 입후보자가 1~3명 수준이기에 용역업체 직원의 홍보효과가 덜하지만, 비상근임원이나 대의원은 입후보자가 수십명에서 수백명이기에 홍보효과는 탁월합니다.
- 6) "1번부터 몇 번까지 뽑아 주셔야 정비사업이 빨라집니다. 몇 번 이후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"
- 7) 더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을까요? 수십 수백명의 입후보자들은 선거권자 대부분에게 생면부지이기 때문에 홍보요원의 말한마디는 막강합니다.
- 8) 밀장빼기 기술과 거기에 기댄 줄 세우기로 대전 곳곳의 정비사업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.

3. 서울시에는 이 같은 혼탁 선거를 막기 위해 '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'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대전에도 이 같은 규정이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.